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81호) 2010. 6. 121~155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Th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Immigrant Brides in Local Community Adaption

장 한 나* · 윤 기 찬**

Jang, Han-na · Yoon, Ki-chan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실증적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는 현황조사에 그치거나 그들의 결혼만족도 및 생활실태조사, 인권침해 등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찾아, 근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과 파트너십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담당자집단의 경우는 외부환경만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보다 담당자 집단이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동양대학교 행정경찰학부 조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0. 5. 10, 심사기간(1,2차): 2010. 5. 23 ~ 2010. 6. 18, 게재확정일: 2010. 6. 28

는 현실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수용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로컬 거버넌스,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적응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immigrant brides in local community adaption. The case study was selected from immigrant brides and staffs in charge in rural region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esource and partnership has been influenced local community adaption of immigrant brides. On the other hand, staffs perceive that outer environment have affected the adaption of immigrant brides. In conclusion, immigrant brides are interested in financial support and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in short term. Therefore, local government have to strive for community adaption of immigrant brides.

□ Keywords: Local Governance, immigrant bride, Community adaptation

Ⅰ. 서 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는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위주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2008년 현재 국제결혼의 비율이 38.3%로 농촌지역에 있어 국제결혼이 지배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2008).

2008년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은 총 36,204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은 총 28,163건으로 국제결혼 중 77.7%, 전체 결혼 대비 8.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경상북도 전체 혼인건수 대비 2000년 2.1%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11.7%로 6년간 5.6배나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9.7%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2008년 경상북도 총 국제결혼건수는 1,696건이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바이다.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종을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농림부, 2007: 3).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편견, 의사소통 능력 부족, 문화격차, 부부갈등 및 시부모와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한국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에서의 결혼이주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조석주, 2007: 5).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일부 수행할 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정책면에서 내국인과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생활정보 제공, 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2세 교육지원, 보건,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윤기찬, 2008: 2).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와 다문화가족들의 문제 등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현상이자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행위 주체인 지방정부, 기업, NGO, 공공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최영출 외, 2006).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는 현황조사에 그치거나, 그들의 결혼만족도 및 생활실태조사, 인권침해 등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나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찾아, 근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제공해주어야 할지를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고 이 요인들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관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1].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농촌 소도시인 A시와 B군을 표본도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A시와 B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관계자 각각 100명과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로 부족한 내용은 각종 문헌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세계화 시대의 여성 이주는 20세기 말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며(김은실, 2002),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후진국의 여성은 이러한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취업보다는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빈곤국 여성과 선진국 남성의 결혼은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화 시대 여성이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은 노동력이주와 연관된 문제이지만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주방식 중 결혼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이다(홍기혜, 2000). 여기에 계층상승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더해지면 빈곤국의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여성 본국의 가난과 실업이라는 경제적 요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주의 여성화를 부축이고 있다(홍민영, 2008).

한국에서의 소위 '국제결혼'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엄청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말해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주로 미국인 및 일본인)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이주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을 한 여성은 일본 출신을 제외하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여성들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들의

1) 여기에서 결혼이주여성 관계자 및 담당자는 시청 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결혼이주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관 담당직원 및 강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표현영, 2004). 즉 199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 양상은 단순히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의 사례 수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중심적 유형이 새로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으로 그리고 한국인 외국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외국인 부인이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 3%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6년 12.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현재 10.8%의 비율로 약 3%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의 비율은 2006년까지 경북 전체 혼인건수 대비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 낮은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인 아내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외국인 남편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의 비중은 9.8%, 외국인 남편의 비중은 1.1%로 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9). 또한 2008년 현재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출신이 669명(43.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 569명(37.3%), 필리핀 99명(6.5%), 일본 24명(1.6%) 등의 순이었다.

2.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형태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이민공동체로로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진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Parekh,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란 두 개 이상의 문화공동체가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공동체에 대해 상대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문경희, 2007: 9). 즉 다문화사회이기 위해서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 있어야 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적 이념이 존재해야 하며,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고숙희, 2008: 2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갈등은 물론 고부간·가족간 갈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 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회통합이 지연돼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www.korea.kr).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설동훈 외, 2005). 또한 국제결혼을 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한 차례 상처를 받게 되며, 한국 남성과 결혼 후에도 2년 간 신분 및 법적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및 가족간 갈등을 경험하고, 가정의 빈곤문제와 자녀 양육·교육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지역주민의 부정적 시각과 차별대우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적응 방안으로서의 로컬거버넌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로 국한되고 지방정부와 지역내의 다양한 자발적 조직이 포함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방정부, 민간부문,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력적·참여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사회 공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새로운 개념의 통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로컬거버넌스가 공공부문의 한 영역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용되어 지방정부의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운동의 활동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기관, 2009: 27).

다시 말해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내의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 지방정부, 지역사회구성원, 사회복지단체, 지역 내 기업, 관련 NGO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영출 외, 2006: 29~30).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국가 주도의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도하여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이은구 외, 2003), 각 파트너의 관계는 수평적이고(류재현, 2002), 각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오재일, 2004)가 핵심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로컬 거버넌스가 구축된 사회의 특성은 네트워크, 상호의존성, 자원교환과 상호작용, 상호간의 신뢰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로컬 거버넌스는 파트너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의존성이 중요한데, 자금, 물자, 정보 등에 대한 상호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는 자원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수평적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마지막으로 로컬거버넌스는 참여자 간에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류재현, 2002; 이은구 외, 2003; 오재일, 2004).

본 연구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을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자원,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들 간의 관계, 외부환경 등이 있으며(Lasker et al., 2001; 이은구 외, 2003), 이러한 요인들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영향관계가 성립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로컬 거버넌스는 이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Benington & Geddes, 2001).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로컬거버넌스가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이도형, 2004: 227). 프랑스의 지속적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복지제도의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소외방지와 퇴치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지역의 실업문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내 사회적 기업의 출범이나 정착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저축이나 융자에 관한 정보센터(Eficea)를 1994년에 창설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관리자로 기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지방정부와 결혼이주여성을 연결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연구

국제결혼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집단적이고 초국가적인 '결혼이주'형태를 띠며, 이런 흐름에 마찬가지로 연구 범위도 시대상을 반영하듯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방위적 범위로 확산되어 학술연구와 정부 주도의 실태 조사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보라, 2007).

<표 1> 선행연구의 유형화

연구주제	세부주제	연구자
생활실태 조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조사	설동훈 외(2005) 홍미희 외(2008) 김유은·이인영(2008)
	인권침해의 문제 및 해소방안	전진희(2007) 박지영(2008)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폭력경험	박정숙 외(2007) 이한동(2008)
지원정책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대한 정책지원 방안	김성화(2008) 김용근(2008)
만족도 조사	결혼만족도 및 삶의 질과 적응	송미영·박경희(2008) 정천석·강기정(2008_ 홍민영(2008) 이형철(2008) 김보라(2008)
	문화적 차이 및 스트레스 연구	김은실(2007) 추현화 외(2008)
자녀문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	이창호(2008) 서종남(2008)

이러한 국제결혼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흐름에 대해 유사한 범주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조사와 관련된 연구(설동훈 외, 2005; 홍미희 외, 2008; 김유은·이인영, 2008 등),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성화, 2008; 김용근, 2008 등), 셋째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소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전진희, 2007; 박지영, 2008 등),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이한동, 2008; 박정숙 외, 2007 등), 다섯째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송미영·박경희, 2008 등)과 적응에 관한 연구(정천석·강기정, 2008; 홍민영, 2008; 이형철, 2008; 김보라, 2008 등), 여섯째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이창호, 2008; 서종남, 2008 등),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추현화 외, 2008; 김은실, 2007 등) 등이 있다. 이 밖에 기타 연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일곱 유형으로 크게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일곱가지 유형을 크게 네가지 범주로 유형화하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생활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자녀문제 연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 등의 순이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일곱가지 유형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홍민영(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욕구분석을 토대로 농촌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문화체험, 직업교육 실시, 방문교육과 적응지원프로그램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들고 있다. 김성화(2008)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제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차별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전문 인력(교원, 장학사)의 양성, 학교교과과정상 다문화 교육의 포함, 평생교육과의 연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영(2008)은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파악한 후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방안으로는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개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를 정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 시 피해자 의견개진 기회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제도화,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관리,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인권보호 시스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2008)의 연구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적응 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농촌형 여성 결혼이민자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나열하고 있지만, 과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해결방법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실증적 분석

1. 분석지표의 도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로컬거버넌스 결정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들에는 최진학(2006), 김창기(2005), 이도형(2004), 김형양(2004), 강황선(2003), 최병대(2003), 문인수·이종열(2002), Lasker et al.(200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asker, et al.(2001)은 환경적 조건에 대해 파트너십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결정 요인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인들 역시 로컬 거버넌스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최영출, 2006: 83). 구체적으로 자원,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 특성, 외부환경 등이 포함된다. 첫째, 자원에는 ① 자금, ② 공간, 장비, 재화, ③ 기술과 전문지식, ④ 정보, ⑤ 사람, 조직, 집단에 대한 연계, ⑥ 승인, ⑦ 소집능력 등이 있다. 둘째, 파트너의 특성에는 ① 동질성, ② 관여수준 등이, 셋째, 파트너들 간의 관계에는 ① 신뢰, ② 존경, ③ 갈등, ④ 권한차별 등이, 넷째, 파트너십 특성에는 ① 리더십, ② 행정 및 관리, ③ 운영체제, ④ 효율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에는 ① 지역사회 특성, ② 공공 및 조직정책 등이 있다(Lasker, et al., 2001: 188~196). 문인수·이종열(2002)은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소로 환경조성, 리더십,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였다.

최병대(2003)는 거버넌스의 핵심변수로서 시민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일체감,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강황선(2003)은 로컬거버넌스 결정요인으로 리더십,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파트너십, 참여자 역량, 정부유인체계 등을 들고 있다.

김형양(2004)은 로컬거버넌스의 변수로 신뢰, 대화, 파트너십, 내부역량, 자원(행·재정적 지원) 등을 들고 있으며, 이도형(2004)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성변수로 지역환경, 지자체의 추진의지, 참여, 파트너십 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역의 자원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창기(2005)는 거버넌스의 결정요인으로 환경적 요인, 네트워크 구조요인, 네트워크 내부운영요인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자원,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들 간의 관계, 외부환경이 있다. 네트워크구조 요인으로는 네트워크 주체자, 이해관계자 범위, 이해관계자 책임소재, 참여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내부운

영요인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전략, 상호작용 주선제도 및 중개제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진학(2006)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로컬 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의 실현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란 가정을 제시하게 되었다. 최진학은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위의 김창기(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적 요인과 유사하다. 크게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등 환경적 조건 이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능력이라 할 수 있는 기능 부분이 추가되었다. 환경적 조건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자원은 크게 재정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며, 파트너십에는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 간의 관계, 주민자치센터특성이 있으며, 외부환경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지자체의 특성 등이, 마지막으로 기능에는 제공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분석을 위한 연구지표

분석차원	측정세부항목	분석 세부지표
자원	재정자원	-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 예산의 확보 - 재원의 지원 경로
	물적자원	- 시설 및 공간
	인적자원	-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인프라 - 자원봉사자 수 - 각종 자료나 정보
파트너십	파트너 특성	- 파트너의 동질성 - 네트워크 관리 및 주체자 - 실질적 관여수준
	파트너 간의 관계	- 신뢰 및 권한 - 홍보방법과 빈도
외부환경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의 특성
	지자체의 특성	- 지자체의 운영 및 특성 - 지자체의 역할
기능	제공 프로그램	- 개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종류 - 사회단체 및 사회프로그램과의 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	- 운영체제 - 효율성
	프로그램이용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결혼이주여성의 요구 수용

이상에서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결정요인으로 자원(Lasker et al., 2001; 김형양, 2004; 이도형, 2004; 김창기, 2005; 최진학, 2006), 파트너십(Lasker et al., 2001; 문인수·이종열, 2002; 최병대, 2003; 강황선, 2003; 김형양, 2004; 이도형, 2004; 김창기, 2005; 최진학, 2006), 외부환경(Lasker et al., 2001; 문인수·이종열, 2002; 이도형, 2004; 김창기, 2005; 최진학, 2006)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능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측정 세부항목으로는 자원의 재정자원, 물적 자원, 인적자원 등이 있으며, 파트너십에는 파트너 특성, 파트너 간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특성 등이 있고, 외부환경에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는 제공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2].

2.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경상북도 A시와 B군을 선정하여 담당자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큰 분석틀은 유사하나, 세부 지표항목은 다르게 집단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술한 분석틀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실제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기능에 관한 18개 문항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문항 8개 문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일반사항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담당자의 경우, 분석차원 18개 문항, 결혼이주여성 관련 문항 8개, 인구통계학적 문항 4개로 구성하였다. 두 설문 모두 분석차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가

2) 본 연구의 분석틀은 로컬거버넌스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중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시·군은 2009년 현재 13곳으로, 그 중 A시를 선정하여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상북도의 시·군중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높은 B군을 선정하여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시는 인구 10만의 농촌 소도시이며, 결혼이주여성(혼인귀화자 포함)이 260명으로 다른 중소도시에 비교해보았을 때 7번째로 많으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어 관련담당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B군의 경우 인구 2만 7천여 명의 농촌 소도시로서 B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중 2/3이상(94명)이 결혼이주여성(혼인귀화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A시와 B군은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로서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표본도시로 선정하였다.

장 낮은 점수인 1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하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문항은 객관식 문항으로 응답자가 1개 내지 중복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A시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와 B군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4]. 연구대상의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식 중 판단표본추출방식(judgement sampling)[5]을 채택하였다.

설문지는 담당자 50부, 결혼이주여성 100부 등 총 150부를 배포하여 담당자는 50부(100%), 결혼이주여성은 80부(80%)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담당자 43부, 결혼이주여성 6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설정한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각종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연구내용의 보완으로 사용한 설문조사를 검증하기 위하여 Windows용 SPSS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대상의 인구학통계학적 특성을 결혼이주여성과 담당자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37명(53.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여성이 14명(20.3%),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각각 6명(8.7%), 7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의 연령은 30대가 48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명(20.3%)이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총 69명 중 66명(95.7%)이 주부로 생활하고 있어, 외부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기간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44명(63.8%)으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도 22명(31.9%)으로 그 다음으로 많

4) A시의 경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담당자 수 50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B군 역시 결혼이주여성 94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5)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으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사전지식은 있지만 모집단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모집단으로부터 확률표본추출이 힘든 경우, 연구자가 알고 잇는 모집단의 특성을 가진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및 관련담당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신민철, 2010: 100-101).

았다. 자녀수의 경우, 1명의 자녀를 가진 여성이 25명(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 22명(31.9%)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유로 69명의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결혼을 선택하였으며, 또한 결혼 알선업체의 매체를 통해 결혼을 한 여성이 69명 중 55명(79.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시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명(16.3%), 여성이 36명(83.7%)으로 여성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 중에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지도사 및 센터교육담당자가 2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응답에는 예산지원 1명,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자 1명, 모든 업무 총괄 1명, 무응답 5명으로 총 9명이 있었다. 직업으로는 교사 및 전문직이 11명(2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공무원과 기타 응답이 각각 10명(23.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한 설문에 1년에서 2년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이 28명,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지역사회 적응 영향요인 분석

1)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컬 거버넌스 결정요인으로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기능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9년 5월 11일 결혼이주여성 관련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6]를 실시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의 설문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요인구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본 연구의 표본 집단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6) 사전조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행하는 예비조사로서 질문방법을 검토하거나, 질문항목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응답을 얻는 데 저항은 없을 것인가 등 조사실시에 필요한 여건들을 미리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질문 항목의 응답 분산을 파악하여 표본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요인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요인구성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파트너십과 기능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외부환경의 경우, 자원에 포함된 자원봉사자의 수와 각종 자료나 정보의 항목이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18개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는데,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24로 신뢰 있게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 역시,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요인분석(결혼이주여성)

항 목		요 인			
		1	2	3	4
파트너십	파트너 간의 동질성	.811	.280	-.061	-.018
	실질적 관여수준	.797	-.144	.141	.076
	네트워크 관리	.759	-.029	.184	.055
	신뢰	.732	.250	-.046	.060
	효율성	.638	.129	.185	-.013
기능	프로그램 내용	.076	.863	.064	-.007
	프로그램 종류	.124	.794	.264	-.044
	관련 단체 연계	.059	.743	.046	.111
	요구 수용	.155	.652	.141	.184
	평생학습	-.004	.600	.324	.279
외부환경	지역주민 관심	.308	.320	.753	.009
	지방정부 역할	.327	.285	.745	-.053
	각종 자료나 정보	.015	.026	.737	.308
	지역사회 특성	.141	.250	.621	-.013
	자원봉사자 수	-.177	-.029	.600	.428
자원	물적자원	.197	.114	.020	.907
	재정자원	.143	.224	.061	.880
	인적자원	-.228	.041	.400	.628
고유치	-	5.384	2.706	1.999	1.623
설명량	65.068	29.913	15.033	11.105	9.017
Cronbach′s α	.624	.828	.829	.807	.810

(2) 담당자의 설문에 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담당자의 요인분석 역시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요인분석결과와도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설문문항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담당자의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래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속해 있었던 지방정부 역할, 지역주민 관심, 지역사회 특성, 평생학습에 관련 단체 연계의 부분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파트너십에서는 본래의 파트너 간의 동질성, 네트워크 관리, 효율성에 요구수용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자원의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구성한 그대로 물적자원, 인적자원, 재정자원, 자원봉사자의 수,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는 본래의 프로그램의 수와 종류 요인에 신뢰 및 실질적 관여수준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전체 요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0.777로 신뢰 있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수준을 살펴보면, 외부환경은 0.9, 자원, 기능, 파트너십 모두 0.8 이상의 값으로 매우 의미 있는 값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분석(관련 담당자)

항 목		성 분			
		1	2	3	4
외부환경	지방정부 역할	.899	-.007	.078	-.122
	지역주민 관심	.874	-.062	.135	.199
	관련 단체 연계	.852	-.038	.215	-.213
	지역사회 특성	.793	.284	.145	.121
	평생학습	.743	-.188	-.136	.307
자원	물적자원	.027	.853	.259	.087
	인적자원	.064	.686	.169	.255
	각종 자료나 정보	.095	.665	.537	.180
	자원봉사자 수	-.021	.594	.247	.488
	재정자원	-.385	.590	.355	.122
기능	프로그램의 종류	.138	.431	.797	.027
	신뢰	.143	.318	.774	.230
	실질적 관여수준	.241	.069	.722	.368
	프로그램의 내용	.091	.558	.606	.220
파트너십	요구 수용	.263	.202	.557	.585
	네트워크 관리	.093	.369	.120	.857
	효율성	.085	.205	.439	.710
	파트너 간의 동질성	-.012	.214	.543	.598
고유치	-	8.405	3.951	1.448	1.093
설명량	74.507	42.025	19.775	7.240	5.467
Cronbach's α	.777	.900	.868	.874	.876

2) 영향요인별 평균차이

(1) 자원

우선 A시의 경우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총 21,504천원(10%)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147,354천원(70%), 도비 31,575천원(15%), 시비 31,575천원(15%)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B군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는 설문을 한 결과, 평균 4.22(0.511)로 나타났고, 이는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B군의 재정적 지원에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보다 다소 낮은 3.58(0.830)로 나타났다.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예산부족 및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평균차이는 유의확률이 p<0.05 이하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므로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자원의 평균차이 분석

문항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t값	유의확률
		평균(표준편차) 빈도(퍼센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4.22 (.511)	3.58 (.830)	-4.085	.000*
예산 (운영비) 확보	중앙정부 부처	32(46.4)	33(76.7)		
	경상북도청	26(37.7)	1(2.3)		
	지방자치단체	11(15.9)	6(14.0)		
	주민들의 모금	-	-		
	지자체·주민 공동부담	-	-		
	기업·개인의 기부금	-	-		
	기타	-	3(7.0)		
다문화 지원센터 재원확보	중앙정부	33(47.8)	37(88.1)		
	지방정부	34(49.3)	3(7.1)		
	기업 및 개인후원자	2(2.9)	-		
	지역주민	-	1(2.4)		
	수강료	-	1(2.4)		
물적 자원에 대한 만족도		4.23 (.573)	2.61 (1.059)	-8.262	.000*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도		4.32 (.528)	3.33 (.736)	-6.890	.000*

*p <0.05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운영비(예산)의 바람직한 확보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의 확보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더욱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담당자의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가 33명, 76.7%로 과반수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확보를 선택한 사람이 6명, 14.0%, 기타 3명,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재원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중요한 재정 지원의 주체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련 담당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결과와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37명(88.1%)이 선택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직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하는 물적 자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은 평균 4.23(0.573)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반면, 관련 담당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평균 2.61(1.059)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확률 $p<0.05$ 이므로 통계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이나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 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은 4.32(표준편차 .528), 담당자 3.33(표준편차 .738)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수준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2) 파트너십

본 연구에서 파트너란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업, 복지단체 등'으로 정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 단체의 지원정책이 동일한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의 지원정책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수치가 5점 만점에 4.41(0.6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지원정책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련 담당자의 경우, 평균 점수가 2.73(0.87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간의 지원정책이 상이하여 파트너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10.488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p<0.05로 통계상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관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항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71%(49명)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담당자의 경우, 지역복지단체가 48.8%(21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1.9%(18명)이었다. A시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복지단체 내에 설립되어 있고,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의 소속 역시 지역 복지단체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및 사업의 기획, 생활보조금 등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파트너십의 평균차이 분석

문항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t값	유의확률
		평균(표준편차) 빈도(퍼센트)			
파트너간의 동질성		4.41 (.693)	2.73 (.876)	-10.488	.000*
적응 도움 기관	중앙정부	20(29.0)	2(4.7)		
	지방자치단체	49(71.0)	18(41.9)		
	지역 복지단체	-	21(48.8)		
	지역NGO·시민단체	-	-		
	이웃주민	-	1(2.3)		
	기타	-	1(2.3)		
요구 반영정도		4.45 (.654)	2.94 (1.029)	-8.991	.000*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정도		4.33 (.634)	3.58 (.830)	-4.635	.000*
네트워크의 체계적 운영		4.33 (.586)	2.97 (.984)	-7.363	.000*
지역 내 관련단체들의 효율적 관리		4.29 (.688)	3.15 (.906)	-7.035	.000*

문항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t값	유의확률
		평균(표준편차) 빈도(퍼센트)			
네트워크 관리주체	중앙정부	20(29.0)	10(24.4)		
	지방자치단체	49(71.0)	24(58.5)		
	지역 복지단체	-	5(12.2)		
	지역 NGO·시민단체	-	2(4.9)		
	민간조직	-	-		

*p 〈0.05

셋째,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요구반영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 4.45(표준편차 .654), 담당자 2.94(표준편차 1.029)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 정착에 대한 도움정도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4.33, 표준편차 .634), 담당자(3.58, 표준편차 .830)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묻는 설문에서, 네트워크의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 결혼이주여성이 4.33(표준편차 .586), 담당자 2.97(표준편차 .984)로 양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3.15)이 담당자(3.15)보다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네트워크 관리주체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과 담당자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 외부환경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으로 지방정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와 정보 등이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은 4.01(표준편차 .675), 담당자는 4.36(표준편차 .742)으로 담당자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주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은 4.06(표준편차 .662), 담당자 4.45(표준편차 .666)로 담당자가 지역주민의 관심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담당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착이나 적응의 관건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이 공동체 형성이 도움이 되느냐는 설문문항에 대해, 결혼이주여성과 담당자 각각 4.14(표준편차 .625), 4.06(표준편차 .827)으로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양자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및 각종 자료나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의 경우 자원봉사자 만족도 3.36(표준편차 1.245), 자료나 정보 만족도 2.91(표준편차 1.042)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에 내재한 자원봉사자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이고 쉽게 적응한다고 볼 때, A시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2008년 조사한 결과 15명이 있으며, B군의 경우 여성봉사단체가 있다. 그러나 여성봉사단체는 노인복지 및 여성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자의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외부환경의 평균차이 분석

문항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t값	유의확률
	평균(표준편차) 빈도(퍼센트)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도	4.01 (.675)	4.36 (.742)	2.366	.020*
지역주민 관심의 중요도	4.06 (.662)	4.45 (.666)	2.826	.006*
공동체 형성	4.14 (.625)	4.06 (.827)	-.572	.568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도	4.32 (.556)	3.36 (1.245)	-4.210	.000*
각종 자료나 정보에 대한 만족도	4.32 (.556)	2.91 (1.042)	-7.294	.000*

*p <0.05

(4) 기능

기능 측면에서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

대 상	사업영역	사업범주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기타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사회교육, 역사교육, 생활교육

대 상	사업영역	사업범주
다문화가족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자녀교육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
	자조집단	가족통합, 배우자, 시부모, 통합국적, 국적별
	정서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보건·의료, 동아리활동, 자녀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컴퓨터·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통번역사·상담원 양성교육
다문화가족 및 지역구성원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강사파견, 다문화심포지엄,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 다문화교육
지역구성원	전문인력양성	한국어강사·다문화강사· 전문상담원·산모도우미양성, 자원봉사자교육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등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정서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각 시·군·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정도 등에 있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9>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t값	유의확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만족함	4.03 (.766)	3.64 (.699)	-2.488	.014*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3.97 (.707)	3.52 (1.034)	-2.289	.027*
관련단체와 프로그램의 연계필요	4.07 (.773)	4.30 (.810)	1.388	.16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4.03 (.747)	4.58 (.614)	3.653	.000*

* p<0.05
**( ) : 표준편차

다만 관련단체와의 프로그램의 연계 필요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결혼이주여성보다 관련담당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문항에 대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의 평균이 각각 4.03(표준편차 .747), 4.58(표준편차 .614)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담당자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평생학습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향후 제공받기 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가족통합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가족통합교육에는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배우자 프로그램, 시부모 프로그램, 부모자녀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언어의 장벽보다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중점적으로 제공되길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통합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7].

<표 10> 향후 제공받기 바라는 프로그램(단위 : 명, %)

	결혼이주여성		담당자	
프로그램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한국어교육	19	27.5	16	23.2
가족통합교육	44	63.9	23	33.3
문화정서지원사업	5	7.2	10	14.5
역량강화지원사업	1	1.4	6	8.7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	1	1.5
자녀지원사업	-	-	9	13.0
자조집단 및 홍보 사업	-	-	4	5.8

담당자집단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응답결과와 같이 가족통합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주었다. 가족통합교육이 23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이 16명(23.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담당자들은 멘토링, 문화체험, 보건 및 의료, 동아리 활동, 자녀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정서지원사업도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였으며, 담당자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우려도 자녀지원사업의 선택을 통해 나타났다. 담당자의 응답과 결혼이주여성과 차이점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교육 또는 가족

7) 실제로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마지막에는 기타 의견란을 만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몇몇 결혼이주여성들이 기타의견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남편의 언어폭력이 심해요. 교육시켜 주세요."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향후 중점적으로 제공되기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통합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가족통합교육에는 배우자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통합교육이 대다수인 반면, 담당자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다방면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요구수용에 대해 평균 4.04(표준편차 .756)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평균 4.28, 표준편차 .745)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20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전국에 총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상북도 지역에만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앞서 사업추진체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지원 및 사업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하며,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어 예산이 편성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의 소속으로 그 곳에서 종사자 교육을 총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자녀양육지원, 상담·교육·정보 제공, 임신·출산지원 등의 업무를 도와주며, 지역의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학교, 교육청, 이주여성 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내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아래의 통계자료는 2008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의 1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1> 프로그램 참여수준(경상북도 2008년, 단위 : 명)

프로그램	참여인원(연인원)
한국어교육	26,387
다문화사회이해교육	2,554
가족교육	2,812
상담	4,480
자조집단	3,194
정서지원	17,655
역량강화	6,537
전문인력양성	561
합 계	64,180

3) 영향요인 분석

(1) 결혼이주여성

독립변수를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인들인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기능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정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식은 R2값 .227로 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영향정도를 약 22.7%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8], F값이 4.694, 유의확률 0.002로 통계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의미 있는 직선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회귀분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회귀분석에 이용되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는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들이 함께 동일한 회귀식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김호정·허전, 2008: 379). 결혼이주여성의 회귀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VIF 값[9]이 10보다 아주 작은 1.183, 1.121, 1.399, 1.313 등으로 나타나 본 회귀식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응답한 설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원(B=.386)과 파트너십(B=.425)에서 유의확률 p<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외부환경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네 요인 중에서 자원과 파트너십만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표 12> 영향요인분석(결혼이주여성)

종속변수 : 지역사회 적응정도(4.28, 표준편차 .745)						
독립변수	회귀값(B)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VIF
자원	.386	.195	.237	1.983	.052*	1.183
파트너십	.425	.173	.287	2.463	.016*	1.121
외부환경	-.090	.209	-.056	-.431	.668	1.399
기능	.259	.162	.201	1.597	.115	1.313
상수	.109					
R^2(결정계수)	.227					
F값	4.694					

* p<0.1

8) 일반적으로 결정계수는 0.15이상만 되면 사회과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9) 아래 표의 VIF값은 회귀식에 다공선성(多共線性)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0보다 작은 값이면,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에 포함된 재정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등과 파트너십에 포함된 파트너의 동질성, 네트워크 관리 및 주체, 실질적 관여수준, 신뢰 및 권한, 홍보방법 및 빈도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관계가 정의관계이기 때문에 자원을 증가시킬수록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첫째, 재정적 자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표본도시로 선정한 A시와 B군은 모두 경제사정이 열악한 농촌 소도시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경제적 요소가 한계로 작용하고, 대부분이 주부로서 외부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자국에서 경험하는 빈곤보다 더욱 심하게 작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및 예산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물적자원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전부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에 포함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인프라가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 물론 현재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곳곳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담당자의 수가 적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와 종사자의 인력을 보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간의 네트워크 및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인력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파트너특성에 포함된 파트너의 동질성과 네트워크 관리에 포함된 내용으로, 즉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이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래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수많은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그 목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동일한 사업의 반복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재

원이 낭비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는 오히려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정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사업을 지양하여 다양하고 비(非)중복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관여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기관으로 '지방정부'를 선정한 결과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관여정도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도움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파트너 간의 관계에 포함된 신뢰 및 권한이란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수록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방법 및 빈도에 관한 것으로 홍보란 지역사회 내에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 또는 결혼이주여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후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공받을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홍보가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담당자

담당자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제곱의 값이 0.601로 네 요인,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정도를 60.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4.327, 유의확률은 .000으로 이 회귀식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영향정도(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환경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값이 0.798이며, 유의확률이 $p<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이하의 값으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외부환경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에는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주민의 관심, 지역사회의 특성, 평생학습 중요도, 관련 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의 중요성 등이 포함된다. 즉 담당자가 생각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정(+)의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위의 다섯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3> 영향요인분석(담당자)

종속변수 : 지역사회 적응정도(3.81, 표준편차.906)						
독립변수	회귀값(B)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VIF
자원	.113	.159	.110	.713	.480	2.275
파트너십	.271	.173	.246	1.561	.127	2.362
외부환경	.798	.161	.552	4.971	.000*	1.176
기능	.142	.199	.129	.713	.480	3.140
상수	-1.289					
R^2(결정계수)	0.601					
F값	14.327					

* p<0.05

첫째, 지방정부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관심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즉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담당자 집단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평생학습의 중요도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학습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련 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복되고 평이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의 프로그램의 연계가 증가하고 지속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요인을 도입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여성과의 결혼비중이 높은 경상북도의 농촌도시를 사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담당자 간의 인식과 영향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향요인별 결혼이주여성과 관련 담당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외부환경 차원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지역주민 관심의 중요성, 기능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 평생학습의 중요성 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관련 담당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단기적인 시각으로 현재 주어지는 교육이나 재정적 지원 등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관련 담당자의 경우 장기적인 시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부문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10].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기능 등 네 가지의 분석차원과 그에 따른 10가지의 측정세부항목을 구성하여 두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B=.386)과 파트너십(B=.425)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에 포함된 재정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과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관리, 적극적인 요구 수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빈번한 홍보 등

10) 2009년 6월 3일 A시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여 주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사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가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담당자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현장학습체험 같이 우리나라 관광도 하고, 현금으로 보조금이 주어지면 그것에 만족하는 편이예요.”

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당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외부환경(B=.798)만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에는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주민의 관심, 지역사회의 특성, 평생학습, 관련 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자원과 파트너십을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담당자의 경우 외부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1].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로컬 거버넌스 영향요인별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 차원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및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가난한 국가 출신으로 경제적 목적에서 이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고, 정착한 지역이 주로 농촌 또는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제공되는 재정 및 물적·인적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파트너십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 및 인력 Pool을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인력교환을 통해 전문 담당자와 종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차원에서 원어민강사양성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인력개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각 단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조모임과 시민단체 등에 참여하여 그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부환경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관심이 중

11) 2009년 6월 9일 A시 결혼이주여성 관련 담당자와의 2차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앞으로 자녀의 교육이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여성들은 극히 드물고요. 당장 내가 공장이나 식당으로 가서 월 50만원 정도를 버는 것이 지금 교육받아서 한국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저와 같은 관련 담당자, 예를 들면 방문지도사나 담당 복지사 같은 한국 분들은 인식이 다르죠. 이러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여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과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예요."

요하다고 판단된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주여성을 도와주고, 지방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때,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복지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이 향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황선. (2003). 정부중재형 거버넌스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01-227.

고숙희.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김민영. (2008).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보라. (2007). 「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성화. (2008).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용근. (2008). 강원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및 지원방안. 「교육연구정보」, 54: 83-92.

김유은·이인영. (2008). 결혼 이민자의 실태와 지원방안. 「진리논단」, 15: 153-171.

김은실. (2002). "식민화된 여성의 공간을 탈환하라: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여성이론」, 5(겨울): 243-252.

김은실. (200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창기.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형성과정에서의 로컬 거버넌스 연구: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형양. (2004).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1): 29-47.

류재현. (200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형 시장리더십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43-63.

문경희. (2007).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모색: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문인수·이종열. (2002).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서 파트너십 전략의 활용방안. 「한국정책학회보」, 6(3): 53-76.

박기관. (2009).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5-50.

박지영.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정숙 외.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보건복지가족부. (2009).「2009 가족사업안내」.
서종남. (2008).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방안.「교육연구정보」. 54: 6-27.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한국사회복지학회」, pp.245-265.
설동훈 외.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손진분. (2008).「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송미영·박경희.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53-70.
신민철. (2010).「경영경제 통계학의 기초」. 서울: 창민사.
오재일. (2004).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지방행정연구」, 18(1): 3-18.
윤기찬. (2008).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pp.345-365.
이도형. (2004). 로컬복지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8(3): 221-238.
이무영·강기정.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한국가족복지학」, 12(2): 29-44.
이은구 외. (2003).「로컬 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이창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교육연구정보」, 54: 54-62.
이한동. (2008).「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형철. (2008).「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양대학교 정보대학원.
전진희. (2007).「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천석·강기정.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조석주. (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1(3): 3-4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추현화 외. (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최병대. (2003). 함께 다스림의 재종명의 재조명: 로컬거버넌스의 의미와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영출 외. (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최진학. (2006). 「로컬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표현영. (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허평화. (2007). 「천안지역 국제혼인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홍미희 외. (2008). 「인천지역 결혼이주여성 실태와 지원정책」. 인천발전연구원.
홍민영. (2008).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Benington, J. & Geddes, M. (2001). *Local Partnership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New Forms of Local Social Governance?*. London: Routledge.
Chul-In Yoo. (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ls. Thesis(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oss, S. (2001). *Making Local Governance Work*. Hampshire; Palgrave.
J. Pierre. (2000). Introduction: Understanding Governance, in J.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Lasker et al, (2001). Partnership Synergy: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The Milbank Quarterly*. 79(2).
Leach, Robert & Janie. P.S. (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Palgrave.
Peters, Guy B. & J. P.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oery* 8(2): 223-243.
Rhoodes. R. A. W.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ion, In John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7). *Understanding Governe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Richardson, D. and Smith, M. (2000).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oker, Gerry.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Urban Governance in J. Pierre (ed.), Partners in Governance: European and American Experience*. London: Macmillan.

_____. (1997). Local Government in Britain After Thater, in Jan Erik Lane(ed.), *Public Sector Reform*. London: Sage. 10-11.

Wang.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nam,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0(6). IOM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www.gfwri.kr)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여성부(www.moge.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

통계청(www.nso.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정책포털사이트(www.korea.kr)